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균열은 생겼는데 서로 책임을 미룬다면, 공정과 피해를 나누어 배상을 묻다.

공사 피해 손해배상 일부 인용

일부 승소

건물 손해와 소음·진동 피해에 관한 배상 인정

변 론 종 결 2024. 9. 25.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원고 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는 25,085,284원 및 그중 20,340,999원에 대하여는 2023.

6. 25.부터, 4,744,285원에 대하여는 2024. 9. 10.부터 각 2024.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고,

나. 피고 주식회사는,

1) 피고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가.항 기재 금원 중 4,958,570원,

2)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6. 1.부터 2024.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는 17,056,855원 및 그중 13,893,998원에 대하여는 2023.

6. 25.부터, 3,162,857원에 대하여는 2024. 9. 10.부터 각 2024.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고,

나. 피고 주식회사는,

1) 피고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2.가.항 기재 금원 중 3,305,713원,



2)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6. 1.부터 2024.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는 14,056,855원 및 그중 10,893,998원에 대하여는 2023.
6. 25.부터, 3,162,857원에 대하여는 2024. 9. 10.부터 각 2024.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고,

나. 피고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3.가.항
기재 금원 중 3,305,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부터 2024.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의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옆 건물의 신축과 철거 공사 뒤 소음·진동, 균열과 누수 피해가 생겼습니다. 시공사와 철거업체의 책임은 모든 항목에서 같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측정 기록과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별 책임과 인정되는 손해를 나누어 일부 배상을 받은 사건입니다.

단순히 시끄럽고 불편하다는 호소를 넘어, 건물을 복구하는 비용과 생활상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공정을 맡은 업체가 서로 달라 책임을 나누어 묻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02 결과를 가른 쟁점

법원은 소음·진동 기준 위반 내역과 건물의 파손 상태를 함께 살폈습니다. 보수비용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확인했고, 공유자별 재산상 손해와 실제 생활상 피해를 구분했습니다.

시공사와 철거업체의 책임이 모든 항목에서 같지는 않았습니다. 공사와 피해 사이의 관계, 청소비 및 공실 손해 등 청구 항목마다 인정 범위를 나누어 판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응의 핵심

내 건물의 피해, 업체들의 책임 떠넘기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건물의 피해, 업체들의 책임 떠넘기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인접 공사로 생긴 균열·누수와 소음 피해. 해율은 건물 소유자들의 배상 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 시공사와 철거업체가 균열 책임을 서로 미룬다면?
- 소음 측정 기록과 건물 감정 결과가 있다면?
- 업체별 공정과 피해 항목을 나누어 청구해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건물 공동소유자들을 대리하여 두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소음 측정·조치 기록과 건물 상태, 감정으로 확인된 복구비 등을 배상 청구에 연결하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과 공사로 인한 건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요구한 모든 손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항목과 청구인별로 배상 범위를 정했습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판결은 의뢰인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의 일부 배상**을 명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들이 70%, 의뢰인들이 30%를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공사 피해는 눈에 보이는 균열뿐 아니라 그 원인과 복구 범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생활의 불편과 건물 손해를 구체적인 배상 권리로 연결한 결과입니다.

결과의 핵심

인접 공사로 생긴 균열·누수와 소음 피해. 해율은 건물 소유자들의 배상 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인접 공사로 생긴 균열·누수와 소음 피해. 해율은 건물 소유자들의 배상 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 보수 견적과 감정 결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 건물 공유자별 손해를 나누어 청구해야 한다면?
- 소음 민원 기록을 배상 근거로 정리하고 싶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